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스콜 재단'

사회적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은 공감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기업인의 경영마인드에 달린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부터 정부의 지원도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기업 자체가 더 늘어나야 한다. 미국의 한 벤처기업가 제프 스콜(Jeff Skoll)은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가의 활약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스콜 재단'을 설립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ebay)'의 대표였던 스콜은 자신이 거둔 부를 좋은 일에 쓰겠다는 목표로 스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스콜 재단이 펼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자.

정리_ 편집실

젊은 벤처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제프 스콜은 타고난 경영가였다. 스탠포드대학에서 MBA를 전공한 그는 이베이라는 전자상거래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뛰어난 경영수완으로 젊은 갑부가 되었다. 2004년에는 미국의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지에 젊은 갑부 3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1999년,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는 대표 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스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벌여 들었던 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일인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스콜 재단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이들을 연결해 내고, 세상에 알리고,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프 스콜은 이미 이베이 CEO 시절에도 '이베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공헌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스콜 재단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여긴다. 사회적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 빈곤 아동을 교육하고, 물 부족 국가에 식수를 공급하는 일처럼 직접적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해 모든 인류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콜 재단의 사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기업가대상(Skoll Awards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을 통해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과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의 미디어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스콜 재단은 돈을 기부하는 전통적인 재단의 활동에서 나아가 파트너인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영향력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2005년에 스콜 재단이 제작한 '새로운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미국 전역에 시리즈로 방영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벤처기업가가 설립한 재단답게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스콜 재단. 대한민국에도 제2의 스콜재단이 벤처기업인의 힘으로 생겨나기를 기대해본다.